

바람과 파도가 그린 풍경화

태평양을 마주하는 제주의 남쪽에 우뚝 솟은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은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오랜 옛날 사람들의 흔적인 발자국처럼 제주의 낭만을 느끼며 자연의 그림 속에 발자국을 남겨보자.



사계로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671-1 ~ 안덕면 사계리 755-3(약 2.3km)

산방로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56-1 ~ 대정읍 하모리 820-16(약 4.8km)

덕수서로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384-5 ~ 안덕면 덕수리 1679-7(약 2.6km)

형제해안로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18 ~ 대정읍 상모리 163-3(약 3.3km)

사계로/산방로 |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사계로는 사계리의 중심도로이다. 깨끗한 모래와 시냇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계리는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제주 남서쪽의 작은 마을이다. 일주 서로에서 분리되는 **사계로**가 마을의 입구까지 안내한다. 그 길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다 보면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바위산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사계리의 랜드마크인 산방산이다. 이 산의 남쪽을 통과해서 화순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산방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산 속에 방이 있다고 하여 산방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멀리 흐르지 못하는 용암이 흘러나와 특이하게 거대한 종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산방산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산방산

산방산은 솟아있는 모양 때문에 한라산의 백록담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온다. 옥황상제 또는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봉우리를 뿔아 던진 것이 산방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질학적 연대를 측정해 보면 산방산이 한라산 보다 더 오래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의 기발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만하다. 산방산에 오르다보면 군데군데 작은 구멍들이 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람이나 소금기에 침식되거나 표면이 떨어져 나가 생긴 풍화혈이라고 한다. 수십만 년 동안 바닷바람을 견디면서 생긴 영광의 상처이다.

산방산 중턱의 널찍한 굴 안에는 커다란 불상이 놓여져 있어 산방굴사라고 부른다. 산방산은 옛날부터 신비한 힘이 있다고 알려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산방굴을 찾아와 기도를 드리곤 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시대 때 한 스님이 이곳에 불상을 놓고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굴 천장에서는 가뭄이나 홍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의 물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 물에는 인간을 사랑한 여신 산방덕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방굴의 또 다른 묘미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이다. 용머리해안, 형제섬과 멀리 보이는 가파도의 풍경이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그래서 영주십경 중의 한 곳으로 꼽힌다.

산방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용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용머리해안이 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 중 하나라고 한다. 산방산과 달리 지하에서 올라온 뜨

거운 마그마가 물을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층층이 쌓여있는 지층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용머리해안에는 제주 사람들의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설이 전해온다. 용머리해안은 풍수지리적으로 천하를 호령할 뛰어난 인물이 날 기운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호종단을 보내 그 맥을 끊어버리라고 한다. 호종단은 용머리해안에 도착해서 막 바다로 들어가려는 용의 허리를 칼로 끊어버렸다. 그 이후로 제주에는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에는 유난히 뜻을 펼치지 못한 장수설화가 많은데 변방으로 치부되었던 제주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영웅을 기대하는 마음과 더불어 중앙으로 진출하기 힘든 한계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산방로 | 하멜표류기



하멜 상선 전시관

산방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용머리해안 옆에는 제주에 표착을 했던 하멜을 기념하기 위한 하멜 상선 전시관도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은 동인도회사의 스페르웨르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 제주에 표착했다. 서울로 압송된 하멜 일행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14년간 우리나라에서 지내다가 동료들과 함께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그후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하멜표류기를 쓴다. 사실 하멜표류기는 그동안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쓴 것이라고 한다. 이 글에는 당시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책이 발간되면서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유럽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최초로 소개하게 되었다. 하멜 상선 전시관은 당시 난파했던 스페르웨르호를 재현한 것이다. 내부에는 하멜의 표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덕수서로 | 불미공예

산방로와 만나는 **덕수서로**는 덕수리를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덕수리는 새당 또는 신당으로 불리다 덕수리(德修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덕수리는 불미공예로 유명한 마을이다. 풀무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고 농기구 등을 만드는 기술을 제주에서는 불미공예라고 부른다. 덕수리는 불미공예의 오랜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다. 대장간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솥이나 보습을 비롯해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어내었다. 마땅한 도구가 없던 시절 불미공예로 만든 농기구들은 좀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쇠로 만든 솥은 밥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던 불미공예는 현재 전통문화의 한 종류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덕수리의 불미공예는 제주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형제해안로 | 사계리 해안

형제해안로는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에서 안덕면 사계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이다. 올레꾼들에게 인기있는 코스로 알려진 제주올레 10코스는 사계리 해안에서 송악산까지 형제해안로를 따라 이어진다. 이 길은 바다의 경치가 빼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길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멀리 펼쳐진 바다와 함께 독특한 해안의 모습과 형제섬, 송악산, 용머리해안이 어우러진 경치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형제섬

형제해안로 해안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누룩돌이라고 부르는 돌들을 볼 수 있다. 만지면 부스러질 듯한 이 돌은 일반적인 모래사장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그리고 마치 일부러 파놓은 것처럼 곳곳에 웅덩이들이 나 있는데 사계리 주민들은 이 웅덩이에 고이는 바닷물을 이용해 소금 대신 사용했다고 한다.

누렁던 해안이 검게 변하는 곳에 이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현장이 나온다. 사람 발자국을 비롯해서 새, 코끼리, 소, 사슴 등 100여 점 이상의 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화석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형제해안로를 따라 가다보면 바다에서는 형제섬의 여러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 마치 사이좋은 두 형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여 형제섬이라고 부른다. 원래 두 섬은 이어져 있었는데 가운데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두 개의 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두 섬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와 주변 풍경이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가 일품이어서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